

세계의 石油政策 推進方向

— 脫石油政策의 推進 —

〈油協·弘報室〉

□… 이 資料는 最近 日本의 經濟企劃庁이 발표한 「80年度 年次世界經…□
□…濟報告」중 各國의 석유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
□…다. 〈編輯者 註〉 …□

에너지消費 推移

세계경제는 70년대에 두차례에 걸친 석유 위기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바, 그 배경에는 50년대와 60년대를 통해 세계경제가 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에너지多消費型의 경제성장을 추구해 온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73년에 이르기까지 세계경제는 큰 不況없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이는 에너지소비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결과였다. 50년의 石炭환산으로 약 25억 톤이었던 세계의 총에너지(總商業에너지) 소비는 50년대에 평균 5.5%, 60~73년간에 同 4.7%의 비율로 계속 확대되어 73년에는 同 약 77억 톤에 이룸으로써 50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었다. 특히 原油등의 액체연료의 소비증가가 현저하여 50~73년간에 평균 7.5%로 확대되었고, 73년에는 50년에 비해 5배 이상의 소비실적을 기록했다. 또 석유소비가 총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0년의 27%에서 73년에는 46%까지 확대되었다.

서방선진국의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제국 전체의 1차에너지소비량 및 석유소비량은 60~73년간에 각각 연평균 5.1%, 7.6%의 비율로 확대되었으며, 73년에는 석유소비가 1차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기간중 경제성장이 현저했던 日本, 西獨,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1차에너지에서는 각각 연평균으로 10.2%, 4.8%, 7.8%, 석유에서는 同 17.9%, 12.8%, 12.0%의 비율로 소비가 확대되었으며, 日本이나 이탈리아의 경우 73년에 1차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석유소비의 비율이 70%를 넘고 있다.

이와같이 서방선진국은 급속히 석유의존도를 높여 왔는데 그것은 또한 北海油田개발 이전에 있어서는 北美 이외에 유력한 유전을 갖지 못했던 OECD제국에 있어서 1차에너지소비의 수입석유에의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60년에 17.1%였던 OECD제국 전체의 1차에너지소비에 대한 수입석유의 비율은 73년에 38.4%에 달했다.

에너지소비의 증대는 세계의 경제성장과 軌를 같이 하고 있으며, 석유의 경우는 경제성장의 템포를 상회하고 있다. 60~73년간중 OECD 제국전체의 에너지原單位(1차에너지소비량/실질GDP)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석유原單位(석유소비량/실질GDP)는 약화되어 GDP/단위생산을 위해 소비하는 석유량은 이 기간중 38%나 증가했다.

石油多消費化의 原因

이와 같이 세계경제가 石油多消費型으로 기울어진 배경에는 석유라는 流体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값싸고 풍부한데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가와르유전등을 제외하고는 매장량이 풍부한 유전의 대부분이 40년대부터 60년대 전반에 걸쳐 발견, 개발된 것들이다. 매장량도 70년대에 들어설 때까지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이들 유전의 대부분은 조건이 매우 좋아서 그 코스트는 저렴했으며, 또한 당시 석유의 생산, 정제, 유통, 판매를 메이저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안정적이고, 대표적인 아라비안라이트의 公示價格은 50년대, 60년대를 통해 배럴당 2달러 전후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原油價格은 그동안의 인플레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하락했으며, 석유는 다른 생산요소에 비해 저렴한 자원이었다.

한편 석유와 競合관계에 있던 석탄의 가격을 보면, 美國產 석탄가격은 60년대 후반에 상승하기 시작하기까지는 석유가격과 거의 병행해 왔으며, 西獨產 석탄가격을 달러환산으로 보면, 50~70년 기간중 연평균 약 5%의 비율로 상승한 데다가 석유의 流体로서의 利点도 갖고 있어서 석탄으로부터 석유에의 代替를 촉진시킨 결과를 가져 왔다.

第1次 石油危機의 發生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높은 석유의존현상을 배경으로 산유국은 OPEC (석유수출국기구)라는 카르텔 하에서 점차 그 영향력을 증대해 왔다. 즉, 산유국들은 석유소비국들이 이미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는 경제운영에 지장을 받는 상황을 이용하여 自國의 자원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베헤란價格協定(71.2), 리야드사업참가협정(72.12) 등을 통해 가격 및 생산에 있어서 메이저의 지배를 벗어 나기 시작했다.

이같은 산유국의 資原내셔널리즘 속에서 73년에 中東戰이 발발하자 OAPEC(아랍석유수출

국기구)에 의한 석유수출삭감등을 배경으로 석유가격은 대폭 인상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제1차 석유위기이다.

石油消費節減의 지연

제1차 석유위기 이후의 석유소비동향을 보면, OECD전체의 석유소비는 74년, 75년에 연평균 3.4%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78년까지 연평균 3.7%씩 증가했다. 76년 이후의 석유소비 伸張은 제1차 석유위기이전(60~73년)의 신장율(7.6%)의 절반수준이었으나 이것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이 연평균 3.8%로서 60~73년의 同 5.0%에서 저하한 것이 主因이다. 석유절약을 나타내는 石油原單位는 OECD 평균으로 73~78년 기간중 8.3%나 저하되었으며, 특히 76년 이후에는 거의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어 그 개선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석유의 최대소비국인 美國에서는 77년의 석유원단위는 오히려 73년수준을 2.1%나 상회하는 등 거꾸로 석유多消費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 국내원유생산이 漸減해온 美國의 석유純輸入은 원유환산으로 73년의 2만 9천 8백톤(日量 6백만배럴)에서 78년에는 4만 1천 5백톤(同 8백만배럴)으로 증가하여(68년에는 1만 3천 1백톤, 同 2백50만배럴) 석유소비에서 차지하는 순수입량의 비율은 73년의 37.6%에서 77년에는 50.8%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78년 이후에는 美國원유의 생산 및 절감효과가 가세하여 수입의존도도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78년말 이후 세계경제는 또다시 석유 위기로 흔들리고 있다. 제2차 석유위기의 직접 원인은 이란革命에 의한 일시적인 공급량의 감소에서 비롯된 공급구조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제1차 석유위기 이후의 석유소비국의 소비절약, 수입석유의존도의 감소가 충분하지 못했던 데에 主因이 있다.

石油消費減少지연의 原因

제1차 석유위기 이후 주요국에서 석유소비

절감이 시작되었으나 그 결과가 불충분했던 것은 그후 석유의 실질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석유가격의 高騰이 一過性인 것으로 인식되어 석유로부터 代替에너지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主因이다. 그와 동시에 원유가격인상이 末端價格의 급격한 인상을 피할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 것도 省石油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以下에서는 가격의 동향에 착안하여 원유로부터 석유제품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첫째로 石油의 실질가격(1960=100, OECD제국의 GDP디플레이터로 디플레이트)을 아라비안 라이트에 관해 볼 경우, 73년에 24.8%, 74년에 2백27.6%로 급상승한 이후 78년에는 74년 대비 10.5%의 저하를 시현하고 있다. 그것은 不況등으로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석유수요가 줄어든 반면 非OPEC지역에서의 원유생산의 증대 등으로 수급사정이 호전된데 기인되고 있다. 또 OPEC 중에서도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 세계적인 인플레이나 경제혼란의 재현을 막기 위해 원유가격의 인상을 억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 결과 74년부터 78년말까지의 사이에 원유의 名目價格은 배럴당 9.76달러에서 12.70달러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에 대해 OECD의 GDP 디플레이터는 이들 제국의 뿌리 깊은 인플레이 때문에 同期間中 45.5%의 상승을 보였다.

둘째로 西独등 환율이 상승한 국가에서는 달러貨 결제의 원유가격의 상승이 환율상승으로 상쇄되어 自國通貨결제에서의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플레이에 미치는 효과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반면에 석유의 국내에 있어서의 相對價格을 크게 올리지 못해 석유절약의 인센티브를 약화시켰다. 사실 73~78년 사이에 西独의 石油原單位의 향상은 주요국 중에서 美国 다음으로 늦어지고 있다.

셋째로 美国, 캐나다 등 國產原油를 가진 석유소비국에서는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국산원유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平均原油코스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美国의 국산원유가격은 통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시작하기 직전인 79년 5월의 時点에서 배럴당 12.41달러로 수입가격 19.00달러의 65.3%에 그쳐 總平均가격은 15.40달러, 同 81.1%에 머물고 있다. 국산원유가격, 總平均가격의 수입원유가격비는 통제철폐가 어느 정도 진척된 80년 2·4분기에도 이전과 비교할때 각각 67.4%, 84.8%에 머물고 있다.

넷째로 주요국가에서 최종소비자가 구입하는 석유제품가격의 상승율은 원유가격의 상승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西独, 이탈리아, 日本의 경우 79년의 석유제품의 原油에 대한 상대가격은 70년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원유로 석유제품을 생산할때의 다른 投入코스트나 부가가치가 원유가격 정도로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석유제품의 소비가격만 해도 여기에 세금과 같은 요인을 들 수가 있다.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대부분의 경우, 從價稅가 아니라 從量稅를 택하고 있어 원유가격의 상승을 소비자가격에 반영시키는 구조는 아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의 경우, 각국이 稅率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율은 73년 10월에 비해 80년 1월 時点에서 볼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극히 미미한 정도이다.

이러한 요인이 겹쳐 석유와 석유제품의 도매물가 전체에 대한 相對價格은 74년에 급상승한 이후 크게 상승하지 않은 채 76~78년 사이에 나라에 따라서는 오히려 하락한 국가도 있다. 또 소비자가격을 보더라도 휘발유의 실질가격(휘발유 소비자가격/소비자물가)은 같은 기간에 하락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석유제품의 代替에너지(石炭, 석탄제품 등)에 대한 상대가격의 동향에 대해서 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석유소비절감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석유제품과 석탄및 석탄제품의 상대가격을 도매물가로 보면, 美国에서는 72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대해 西独, 日本에서는 석탄, 석탄제품가격이 74년에 피크를 이룬 이후 75년

에는 크게 하락했고, 그 후에도 79년에 다시 대폭 상승할 때까지는 보험세를 유지했다.

이와 같은 相對價格의 동향은 석유의존도의 축소가 요청되고 있다는 점에서 석탄의 석유에 대한 상대소비량의 저하경향을 초래하는 一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석유제품의 석탄 및 석탄제품에 대한 상대가격이 상승경향을 보인 美國에 있어서는 석탄의 석유에 대한 상대소비량이 보험세 내지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각국에서 특히 73년 이후에는 석유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락)한 해에 석탄의 상대소비량도 상승(하락)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양자 사이에는 석유의 量的 入手가능성, 장래의 상대가격에 대한 예상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74년부터 78년 사이에 걸쳐 석유의 소비절감이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그 상대가격의 하락은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에너지 전체로서 보거나, 석유만을 보더라도 대체로 제 2차 석유위기 이전에는 주요소비국에서의 석유소비 절감 내지 省에너지에 대한 가격 메커니즘의 작용은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에너지政策의 推進

제 1차 석유위기 후 각국은 다루어 省에너지의 추진이나 代替에너지의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후의 석유과잉 경향이나 석유의 실질가격의 하락, 景氣회복기였던 78년경에는 에너지문제나 경제운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여하간 에너지문제, 특히 石油의 量的 入手可能性이 경제활동의 제약조건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있으나 그것은 80년대 이후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긴급과제로서의 인식은 다소 희박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란革命을 계기로 촉발

I E A 의 世界石油需給展望

	1978年 實 績	1985年 事 務 局 展 望	1990年 事 務 局 展 望
I E A 諸國(100萬 t)			
一 次 에 너 지 計	3,516	4,040	4,450
非 石 油 에 너 지 消 費	1,705	2,110	2,510
石 油 消 費 (純 石 油 輸 入) (註)	1,811 (1,185)	1,930 (1,210)	1,940 (1,220)
世界石油消費(100萬 b/d)			
I E A 諸 國	38.8	41.6	42.1
其 他(O P E C 포 함)	12.6	17.3	22.2
世 界(公 産 권 제 외)	51.4	58.9	64.3
非 OPEC石油生産(100萬 b/d)			
I E A 諸 國	14.2	17.1	17.1
開 發 途 上 國	4.6	8.5	11.0
公 産 권 으 로 부 터 의 純 輸 入 合 計	1.3 20.1	0.4 26.0	△ 1.1 27.0
OPEC의 生産(100萬 b/d)	30.5	30.8	31.6
追加生産 또는 備蓄必要量(100萬 b/d)	-	2.1	5.7

資料 : IEA "Energy policies and Programmes of IEA Countries, 1979 Review"

(註) 벙커유(1978 : 6,200萬 t, 1985 : 5,000萬 t

1980 : 8,400萬) 을 포함.

變換率 100萬 b/d = 4,830萬 t / 年

된 수급밸런스의 붕괴로 석유가격은 또 다시 크게 상승했다. 또 石油資源 자체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생산량과 함께 증가해 오던 매장량은 최근에 이르러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제 2차 석유위기 때에는 産油國에 의한 자원보전정책, 實質價格支持政策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 한편 국제석유 시장에서는 산유국의 취급량이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메이저의 비율이 크게 줄어 들어 시장구조 역시 크게 변화해 오고 있다. 또 中東지역의 정치불안이 尙存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共產圈의 수급핍박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 특히 石油의 공급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점이 많아 앞으로 일시적인 수급완화는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핍박 또는 불안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IEA(국제에너지기구) 事務局의 85년, 90년의 수급전망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脫石油가 세계경제의 최대의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 80년 6월의 베니스 西方정상회담에서도 「경제성장과 석유소비의 결부를 철폐」하기로 합의의 보았다. 따라서 우선 石油危機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IEA 등의 場을 통한 石油融通制度和 비축의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相對價格의 신축성 유지, 정부에 의한 규제 등의 수단을 통해 석유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 中期的으로는 省에너지 투자등을 통해 경제전체로서의 에너지原單位나 석유原單位의 저하를 도모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석유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석유위기 극복을 위한 시스템의 확립이나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데에는 完成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採算평가 어렵고, 또 리스크도 큰 石油代替 에너지의 공급·수요시스템의 개발에 관해서는 정부 등 公의 기관에 의한 이니시이티브의 확립이 바람직하다.

主要國의 에너지對策

석유소비국들은 제 1차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

의 해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省에너지의 촉진이나 代替에너지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건물이나 주택의 斷熱기준의 확립, 난방온도의 제한, 省에너지투자예의 지원, 자동차의 연료개선 등의 省에너지대책이나 石炭, 원자력의 이용 확대, 再生가능한 에너지의 개발과 같은 석유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각국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重點은 각국의 자원상황, 기후, 사회적 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석유자원이 풍부한 英國은 국내 자원의 보존, 유효이용을 위해 北海 油田의 개발tempo를 늦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국내에 石炭자원이 풍부한 西獨에서는 석탄이용의 촉진, 液化, 가스化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石油火力발전소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고 80년대 중에 발전소의 石油사용을 모두 없앨 방침이다. 프랑스에서는 原子力에 重點을 두어 高速增殖爐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政策 추진방향에 있어서도 西獨에서는 시장기능을 重視하고 있으나 美國에서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캐나다에서는 西部(에너지生産州)와 東部(同 消費州)와의 정치적 대립으로 여전히 국산원유가격의 철폐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以下에서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소비국이며, 그 정책의 귀추가 세계 에너지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美國의 에너지정책을 살펴 보기로 한다.

美國의 에너지政策

美國의 에너지정책은 2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첫째는 中長期的으로 美國경제에 에너지稀少化, 高價格化에 효율적으로 적응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기간중 美國경제를 돌발적인 석유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77년에 등장한 카터政權은 이러한 기본 목표에 따라 77년 4월에 「國家에너지計劃」을 발표했고, 79년 4월에는 「新에너지政策」을 제시하여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왔다. 카터政權의 구상

은 議會심의과정에서 복잡한 利害의 대립으로 많은 수정을 받고 말았는데 78년 11월에 天然가스政策法, 省에너지政策法 등 5개法으로 구성되는 國家에너지法을 시작으로 하여 80년에 들어와서 石油초과 이득세법과 에너지安全確保法이 성립되었다.

中長期목표에 대응하는 카터정권의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첫째로 天然가스 및 原油의 통제가격의 단계적 철폐이다. 天然가스에 대해서는 이미 78년 天然가스政策法에 따라 78년부터 단계적으로 가격이 인상되었고, 뉴 가스에 대해서는 85년까지 통제가격을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국산원유에 대해서도 가격통제를 규정한 75년 에너지政策·節約法을 79년 5월말까지 존속시키고 그 이후에는 81년 10월말까지 국산원유가격의 통제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규정을 이용하여 79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가격통제를 철폐해 오고 있다.

원유가격의 단계적 통제철폐에 따라 국내 생산자의 손에 들어 오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石油超過利潤稅法에 따라 50% 이상을 초과이익세 및 法人稅로 연방정부에 흡수토록 하고 있다. 超過利潤稅에 의한 稅取는 政府案에서는 그 대부분을 代替에너지 개발에 轉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議會의 수정과정에서 그 대부분이 所得稅 경감으로 돌려졌다.

두번째의 핵심은 자동차연료비의 개선, 住宅斷熱의 추진등을 통한 省에너지이다. 前者에 관해서는 이미 75년 에너지 政策·節約法에 따라 자동차 메이커는 자체 생산 승용차의 평균연료비를 85년까지 꺾론당 27.5마일(ℓ당 11.7km)까지 향상시키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또 78년 省에너지政策法, 에너지稅法에 따라 연료비 개선미달부분에 대한 벌금, 휘발유낭비차량에 대한 課稅 등이 결정되었다.

住宅斷熱등에 대해서는 78년 國家에너지法에 따라 斷熱투자, 태양열이용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저소득층에 대한 단열보조금의 지원조치 등이 취해지고 있다.

세번째 핵심은 代替에너지의 개발이다. 80년 6월에 성립된 80년 에너지安全確保法에서는 습

成燃料公社, 太陽에너지銀行을 창설하여 각각 합성연료, 태양에너지 개발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런데 當面の 긴급사태대책으로서는 戰略備蓄과 긴급휘발유할당계획이 있다. 우선 전략비축은 75년 에너지政策·節約法에 따라 도입되었다. 카터 前대통령은 77년의 「國家에너지計劃」에서 78년말 2억 5천배럴, 80년 5억 배럴, 85년까지 10억 배럴의 비축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그 후 기술적인 곤란도 생겨 9천만 배럴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80년에 에너지安全 確保法에 따라 대통령 명령으로 80년 10월부터 하루 10만배럴씩 비축을 늘리도록 되어 있다.

또 긴급휘발유 할당계획에 대해서는 75년 에너지 政策·節約法 및 75년 긴급시에너지節約法에 긴급시의 휘발유 할당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긴급 휘발유할당계획이 80년 7월 議會에서 통과되었다.

美國의 석유수입은 77년 하루 8백80만 배럴을 고비로 78년 8백20만 배럴, 79년 8백30만 배럴, 80년(상반기) 7백10만 배럴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것은 알라스카原油의 증산, 경기감퇴에 의한 수요감소가 主因이며, 그 밖에 高價格에 의한 절약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레이건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접근방법은 크게 다르다. 그것은 에너지에 있어서도 정부의 개입을 가급적 줄이고 민간의 자유시장에 맡기는 것이 最適이라는 기본적 철학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선 첫째로 原油, 天然가스 및 석유제품가격의 가격통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한편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현행 石油超過利潤稅法을 축소 내지 보완(적용제외의 확대, 稅取의 일부를 代替에너지개발자금으로 석유기업에 반환하는 등)조치를 하고 있다.

둘째로 大氣汚染防止法에 의거한 공해방지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석탄의 생산과 이용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는 原子力개발의 추진이다. 또한 오일·셀, 오일·샌드, 가스오일, 태양에너지 등 새로

운 에너지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는 휘발유, 기타에너지稅나 에너지 가격의 통제 또는 그에 대한 지원등의 폐지이다. 기타 에너지에 관한 정부의 규제를 축소시키는 한편 이 업무를 관장하던 에너지省的 폐지 내지 권한축소도 제시하고 있다.

또 戰略備蓄에 관해서는 당면 5억 배럴, 궁극적으로는 10억 배럴의 당초 목표의 달성을 꾀하고 있다.

이와같이 레이건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카터 정부와 비교할 때 ①省에너지 보다는 原子力등 代替에너지를 포함하여 공급증대에 力點을 두고 있으며, ②그것을 價格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민간주도로 추진해 나간다는 두가지 點에 특징이 있다.

에너지政策에 있어서의 國際協調

에너지문제는 한 나라에서 소비를 줄인다 해도 다른 나라에서 소비를 증가시키면 그 효과는 減殺되며, 또 절약으로 국제시장의 수급이 완화될 경우, 그 효과는 전체 소비국이 享受하게 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선진국에서는 종래부

터 IEA 등의 場을 통해 각국의 정책을 조정해 왔으며, 79년의 東京서방정상회담에서는 처음으로, 참가국에 대해 석유수입량에 제한을 가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다.

또 79년 12월에 개최되었던 IEA 각료 이사회에서는 IEA 각국별로 수입석유량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IEA 전체로 80년에 하루 2천 4백 50만 배럴, 85년에 同 2천 6백 20만 배럴을 넘지 않도록 결정했다. 80년 5월의 IEA 각료이사회에서는 또 ① 85년의 수입석유량은 하루 2천 6백 20만 배럴 보다 크게 하회하도록 하며, ② 에너지경제의 구조개편에 필요한 투자장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③ 90년까지 에너지彈力性을 0.6으로 낮추어 총에너지수요에 대한 석유의 비율을 현재의 52%에서 40%수준까지 감소시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80년 6월의 베니스西方정상회담에서도 IEA 각료이사회결정을 지지하는 한편 代替에너지개발의 촉진, 산유국및 소비국간의 대화의 추진, 개발도상국에 대한 에너지개발의 지원 등을 결정했다.

世界銀行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개발에 대해 새로운 기관의 설립에 의한 차관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

圖書案内

石油사정을 알자

大韓石油協會 · 弘報室刊